

乳腺炎의 韓方 外治法에 대한 文獻的考察

장 성 환

경원대학교 부인과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external therapy of Acute Mastitis(乳癰Yu-ong).

Sung Hwan Chang

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Acute Mastitis(急性乳腺炎=乳癰) is an acute suppurative disease appearing in the breast. It is mostly caused by galactostasis, the stagnation of liver-qi(肝鬱) and stomach-heat(胃熱). It is mostly found in breast feeding women, mostly in primiparae. It usually appears in the third and the fourth weeks of postpartum. At the beginning in the chest there appear induration, distending pain, galactostasis, inversion to cold with fever followed by the enlargement of the masses, burning red, megalgia, not subduing of chills and fever, the accumulation of it to form pus. In the early phase it is advisable to follow the therapeutic principles of soothing the liver and clearing away heat, promoting lactation and subduing swelling. After the formation of pus it is advisable to cut radially and drain the pus.

External Therapy(外治法) generally refers to all the methods to treat various diseases and symptoms with application of drugs and manipulation or together with proper instruments on the body surface except the method of taking medicine orally.

Acute Mastitis has been regarded as surgery or the method of taking medicine orally.

But, based on many bibliographies, acute mastitis was treated by external therapy.

Thus through the historical bibliographic studies of external therapy about acute mastitis, this study was made to help the expanding of the methods of treating acute mastitis.

1. 서론

乳房은 여성의 月經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2次性徵으로, 乳房의 발육과 기능은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乳房의 질병은 韓醫學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婦人科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그 예로 《東醫寶鑑》乳門에서 《直指方》을 인용한 곳을 보면 “男子以腎爲重, 婦人以乳爲重, 上下不同而性命之筋一也.”¹⁾라고 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婦人之乳, 男子之腎, 皆性命根也.”²⁾라고 한 것 등이다.

乳房의 질병은 대단히 복잡하여 中國醫書에는 그 病名이 30여 가지나 되는데²⁰⁾, 그 가운데서 현대의 乳腺炎과 유사한 韓方名稱은 妬乳·吹乳·乳癰^{9) 12) 13) 14) 15) 16) 20) 21) 22)}이다.

그 동안 乳腺炎은 일반적으로 양방적인 外科的 치료법이나 韓藥을 內服하는 방법으로만 치료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韓醫學書籍을 조사해보면, 妬乳·吹乳·乳癰을 韓藥이나 民間藥을 이용한 外治法으로 치료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乳腺炎에 대한 韓方的 外治法을 정확히 이해하여 임상적 응용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본론

1. 資料調査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査

각 문헌에서 吹乳·妬乳·乳癰·乳痛·結乳 등 오늘날의 젖몸살·乳腺炎 질환과 관련된 文獻을 조사하였다.

2) 研究方法

(1) 각 문헌에서 젖몸살·乳腺炎 질환과 관련된 外治法만 조사하였다.

(2) 각 문헌에서 處方이 중복되는 것은 考察해서 한데 묶어 비교하였다.

(3) 馬溺, 水銀, 鼠糞 등 현실적으로 오늘날 사용이 불가능한 약재는 제외하였다.

2. 文獻調查

1) 《婦人大全良方》⁵⁾

(1) 妬乳

又方 皂莢十條，以酒一升，揉取汁，硝石半兩，煎成膏敷之。

婦人·女子乳頭生小淺熱瘡，搔之黃汁出力附。《集驗》論曰：凡婦人·女子乳頭生小淺熱瘡，搔之黃汁出，浸淫爲長，百種療不差者，動經年月，名爲妬乳病。婦人飲兒者，乳皆欲斷，世論苟抄乳是也。宜以赤龍皮湯及天麻湯洗之。敷二物飛烏膏及飛烏散佳。始作者，可敷以黃芩漏蘆散及黃連胡粉散并佳。

赤龍皮湯方 槲皮¹⁾切，三升 左以水一斗，煮五升。夏用冷水·秋冬溫之，分以洗乳。亦洗諸深敗爛久瘡，洗畢敷膏散。《千金》同。

天麻湯方 天麻草切，五升。左以水一斗半，煎取一斗，隨寒溫分洗乳，以殺癢也。此草葉如麻葉，冬生夏着花，赤如鼠尾花，亦以洗浸淫黃爛熱瘡·疽濕陰蝕瘡·小兒頭瘡。洗畢敷膏散。《千金》同。

飛烏膏散方 用燒朱砂作水銀上黑煙 各細粉者，三兩，熬令焦燥，礬石三兩，燒粉。左二味，以絹篩了，以甲煎和之，令如脂，以敷乳瘡，日三。作散者不須和，有汁白着可用散。亦敷諸熱瘡·黃爛浸淫汁瘡·蜜瘡·丈夫陰蝕癢濕·諸小兒頭瘡·疳蝕·口邊肥瘡·蝸瘡等，并以此敷之。《千金》同。

黃連胡粉膏散方 黃連二兩，胡粉十分，水銀一兩，同研令消散。左三味，搗黃連爲末，三物相和，合皮裹熟按之。自和合也。縱不成一家，且得水銀細散入粉中也。以敷乳瘡·諸濕癢·黃爛肥瘡。若着甲煎爲膏。《千金》同。

(2) 乳癰

又方：蒲黃草 左熟搗敷腫上，日三度，易之。并葉煎汁飲之亦佳。妬乳及癰并差。

又方：以地黃汁塗卽愈。

又方：取白丁香研塗，乾卽易。

又 赤小豆，萵草 左等分爲細末，苦酒和，敷之愈。

鹿角二兩，甘草半兩 左爲細末，用鷄子白和於銅器中暖溫，敷患處，日五·七易，卽愈。

一方祇用鹿角石上磨，取濃汁塗之，乾卽愈。

一方鹿角燒作灰，酒調抹立愈。

療奶癰并無名癰癩。鼠糞不以多少，燒存性二分，入輕粉二十文，研停，麻油調塗。如有頭卽潰，無頭卽消。又療火瘡。

1) 槲皮^{(10) (11)} : 먹갈나무의 樹皮. 惡瘡·癰癩·痢疾·腸風下血을 치료한다.

療乳頭破裂. 以丁香爲末, 水調敷立愈. 又以蛤粉·胭脂等分, 新水調敷.

金黃散 治奶癰. 川大黃, 粉草各一兩. 左爲細末, 以好酒熬成膏, 傾在盞中, 放冷, 攤之上貼痛處, 仰面臥至五更. 未貼時, 先用溫酒調一大匙, 就患處臥, 明日取下惡物. 相度強弱用藥, 羸弱不宜服.

乾膿散 斂瘡口. 烏賊骨, 黃丹, 天竺黃各二錢, 輕粉二匕., 麝香一字, 老降真骨三錢. 左研爲細末, 乾糝瘡口, 不數日乾.

又方: 降真節二錢, 天竺黃, 露蜂房各一錢, 麝香, 輕粉各少許. 右爲末乾糝.

又方: 乳香, 沒藥, 黃丹各一錢, 龍骨二錢, 眞坯子三錢, 血竭半錢, 麝香一字, 降真節一錢. 右爲細末, 乾糝.

黃蘗一分. 左爲細末, 以鷄子白調停塗之, 乾則易, 立愈.

又方: 疔根搗, 敷之愈.

丹蔘膏 《必效方》療婦人乳癰. 丹蔘, 白芷, 芍藥各二兩. 左咬咀, 以苦酒淹經宿, 以猪脂半斤, 微火煎之. 白芷黃爲度, 膏成, 去滓敷之. 治奶發痛不可忍.

2) 《醫學入門》³⁾

(1) 癰疽《胸腹部·乳房》

乳癰…惟初期, 不分屬何經絡, 急用葱白寸許生半夏一枚, 搗爛, 爲丸芡實大, 以綿塞之, 如患左塞右鼻; 患右, 塞左鼻, 二宿而消.

(2) 《本草》

蕪菁: 卽蘿蔔苗也. 一方, 乳癰初腫疼痛, 作寒熱, 取根葉, 入鹽少許, 搗傅覺熱, 易之.

3) 《景岳全書·婦人規》⁷⁾

(1) 吹乳·妬乳

產後吹乳, 因兒飲乳, 爲口氣所吹, 致令乳汁不通, 壅結腫痛, 不急治之, 多成癰腫, 速服瓜蒞散, 外以南星末敷之, 更以手揉散之.

一方: 治妬乳·乳癰腫痛. 用萱根草搗酒服之, 以滓罨患處.

4) 《東醫寶鑑》¹⁾

(1) 吹乳·妬乳

- ① 產後, 宜勤擠乳汁, 不宜令乳汁蓄積, 蓄積不去, 便結惡汁於內, 引熱溫壯, 結堅掣痛, 大渴引飲, 乳腫急痛, 手不得近, 以成妬乳, 非癰也. 急灸兩手魚際, 二七壯, 斷癰脈也, 不復惡, 手近, 乳汁亦自出, 更可手助. 迨捋之則, 乳汁大

出, 皆如膿狀. 內服連翹湯〈即五香連翹湯方見癰疽門〉. 外以赤小豆末, 塗之, 便差. 《資生》

- ② 熨法 : 治吹乳·妬乳. 連根葱白, 搗爛, 鋪患處上, 用瓦罐盛灰火, 蓋葱上一時, 蒸熱出汗, 即愈《醫鑑》

(2) 乳癰

- ① 初起, 便宜隔蒜灸法, 切忌鍼刀.
 ② 丹參膏 : 治乳癰結核刺痛, 及潰後不斂. 丹參·赤芍藥·白芷, 各等分剉, 酒淹二宿, 入猪脂半斤煎, 令白芷焦黃則, 膏成矣, 去滓, 入黃蠟一兩, 攪勻候凝, 每取少許, 塗之. 《入門》

(3) 乳巖=妳巖

- ① 一方 : 妳巖²⁾初起急用. 葱白寸許, 半夏大一枚, 搗爛爲丸芡實大, 綿裹, 如患左乳, 塞右鼻, 患右乳, 塞左鼻, 二宿而消. 《入門》

(4) 單方

- ① 山藥 : 生者, 治吹乳腫痛. 搗爛付上即消. 速去之, 恐肉腐. 《醫鑑》
 ② 益母草 : 治妬乳欲成癰. 生搗爛付之即差. 乾則爲末, 水調付之. 《本草》
 ③ 蒲黃草 : 治妬乳及乳癰腫痛. 取生根, 搗付腫上, 日二易. 食之亦良, 取葉煎服亦好. 《本草》
 ④ 蒲公英 : 治妬乳及乳癰腫痛. ……又採取, 水煮汁飲之. 又爛搗付患處, 立消. 《入門》
 ⑤ 青桑葉 : 治乳硬作痛. 取嫩葉, 生搗細, 調米飲. 貼病處. 《得效》
 ⑥ 赤小豆 : 治妬乳·乳癰. 研爛和酒, 去滓溫服, 以滓付患處, 即效. 《得效》
 ⑦ 蔓菁(傘旱) : 治乳癰痛寒熱. 取根葉, 洗淨入鹽, 搗付, 熱即換, 三五度即差. 《醫鑑》
 ⑧ 鹿角 : 治妬乳. 石上磨取白汁, 塗之. 乾則又塗, 并令人, 啣却黃水, 即消. 《本草》

5) 《濟陰綱目》⁹⁾

(1) 妬乳

《集驗》論曰: 凡婦人·女子乳頭生小淺熱瘡, 搔之黃汁出, 浸淫漸長, 百療不差, 動經年月, 名爲妬乳. 宜以赤龍皮湯·天麻湯洗之數·二物湯·飛烏膏及飛烏散. 始作者, 可數以黃芩漏蘆散·黃連胡粉散并佳.

2) 《醫學入門》⁴⁾에는 乳癰이라고 되어 있다.

赤龍皮湯方 治妬乳. 槲皮三升, 水一斗, 煮五升. 夏冷洗·秋冬溫之, 分以洗乳.

天麻湯方 治妬乳. 天麻草五升. 以水一斗半, 煎取一斗, 隨寒溫分洗乳, 以殺痒也.
洗畢敷膏散.

飛鳥膏散 治乳頭生瘡及諸熱浸淫. 丈夫陰蝕痒濕·小兒頭瘡·疔蝕等瘡, 并以此傅之.
維粉燒朱砂作水銀上黑煙三兩, 熬令焦燥, 枯礬三兩, 燒粉. 左二味, 以篩爲細末, 以甲煎和之, 令如脂, 以敷乳瘡, 日三. 有汁可乾搽.

黃連胡粉膏 治乳瘡·并諸濕癢·黃爛肥瘡. 黃連二兩爲末, 胡粉二兩半, 水銀一兩, 同研令消散. 左三味相和, 皮裏熟按之. 自和合也. 縱不成一家, 且得水銀細散入粉中也. 以敷乳瘡.

一方 治妬乳生瘡. 蜂房, 豬甲中土, 車轍中土 各等分. 左二味爲末, 苦酒和傅之.

鹿角散 治婦人乳頭生瘡, 汁出疼痛欲死, 不可忍者. 鹿角三分, 甘草一分. 左二味爲末, 和以鷄子黃於銅器中溫處, 炙上傳之. 日再卽愈. 神驗不傳.

雜方 治妬乳乳癰. 燒自死蛇爲灰, 和以豬膏塗之, 大良.

一方 馬溺塗之, 立愈.

一方 取搗米槌二枚. 炙令熱, 以絮及故帛乳上, 以槌更互熨之, 瘡止, 已用立效.

一方 皂角十條, 以酒一升, 揉取汁. 硝石半兩, 煎成膏傅之.

一方 蔓荊子搗爛, 酒服. 仍以滓敷患處.

一方 用赤小豆, 酒研爛, 溫服, 滓封患處.

一方 仙人掌草一握, 小酒糟一塊. 生薑一大塊. 同研爛, 入桂末少許炒, 酒服, 滓罨患處.

一方 乳頭裂破, 用丁香爲末傅之.

一方 用秋茄子裂開者, 陰乾, 燒存性, 水調塗之.

補遺方 治婦人乳頭小淺瘡爛痒. 用芙蓉花或葉, 乾爲末搽之.

6) 《當代中藥外治臨床大全》⁹⁾

急性乳腺炎

屬中醫藥“乳癰”範疇. 多見于哺乳期婦女, 以產後3~4周多發.

(1) 敷貼法

處方: 芒硝 30g, 馬齒莧 30g 《內病外治》

方法與主治: 上方藥搗爛後外敷患處, 用布包蓋固定. 1日2次, 3天1療程. 主治乳腺炎初期.

(2) 溫敷法

處方: 雪見草³⁾ 《中藥貼敷療法》

方法與主治：取新鮮全草，用量視患部紅腫範圍大小酌定。洗淨搗爛 敷于患處，外用紗布蓋上固定，如藥已乾，即用涼開水濕潤。1日3次，3天1療程。主治乳腺炎未成膿者。

(3) 吹鼻法

處方：貝母《本草綱目》³⁹⁾

方法與主治：上方適量，研碎吹入鼻內。1日3次，3天1療程。主治乳腺炎初期。

(4) 鼻嗅法

處方：半夏6g, 大蔥10g, 冰片3g 《中醫外治法集要》

方法與主治：半夏研細末，大蔥搗如膏，調勻，分成7份，用塑料薄膜卷成長筒狀，按壓健側鼻孔，以患側鼻孔嗅之，或裝瓶嗅之。如法將7份藥膏嗅完為1次，約需30分鍾左右。1日1次，3天1療程。主治乳腺炎初起。

(5) 薰洗法

處方：葱白 3~5兩 《中醫雜誌 1983; 24(10):15》

方法與主治：葱白切細後加入適量熱水，先熏後洗患側乳房，每日 3~5次，2天1療程。主治乳腺炎初期。

(6) 塞鼻法

處方：鮮芫花根皮。《名醫特色經驗精華》

方法與主治：上藥適量搗爛，搓成細長條塞鼻，約20分鍾左右，鼻內有熱辣感時取出，左右交替使用。1日2次，每次30分鍾，3天1療程。主治急性乳腺炎初期。

(7) 局部外敷法

處方：鮮蒲公英 20g 土豆⁴⁾1个 《經驗方》

方法與主治：上藥洗淨，石臼搗爛成泥狀外敷患處，1日1次，3天1療程，主治乳腺炎初期。

(8) 薄貼法

處方：五倍子 《中醫雜誌 1981; 22(6):15》

方法與主治：取適量五倍子碾細過篩成粉末，加食用醋適量調和，稍置片核即成深褐

3) 雪見草¹⁰⁾ : 배암차즈기¹¹⁾. 《江西民間草藥驗方》凉血, 活血, 消腫한다. 無名腫毒과 跌撲傷痛을 치료하는데, 설견초 뿌리를 짓찧어, 계란 흰자와 섞어 환처에 붙인다. 만약 跌撲傷에 의한 통증에는 술에 섞어서 바른다.

4) 土豆¹¹⁾ : 땅콩의 種子이다. 落花生이라고도 한다. 潤肺, 和胃이 작용이 있다. 乳婦의 乳少症을 치료한다.

色粘膏，瓷罐貯存。用時將藥攤于不吸水紙上，約2~3毫米厚，敷患處，外用繃帶包括，2~3天換藥1次，10天1療程。主治非潰膿乳腺炎。

(9) 藥液熱敷法

處方：蒲公英 30g, 連翹 12g, 乳香 8g 《民間中草藥經驗選》

方法與主治：上方研細末，調拌醋或白酒，炒熱後外敷患處，每2~3小時換1次，3天1療程。主治乳腺炎初期。

(10) 隔藥灸法

處方：葱白或大蒜 《經驗方》

方法與主治：用葱白或大蒜搗爛，鋪患處，用艾條熏灸，1日2次，每次 10~20分鐘，3天1療程。主治乳腺炎初期。

(11) 藥捻法

處方：黃升 75g, 輕粉 30g, 煨石膏 180g, 冰片 15g, 川連 30g 《名醫特色經驗精華》

方法與主治：先將川連研極細，再將諸藥研細末，調勻。用紙捻插入膿腔，膿水減少後改用九一丹提毒生肌，1日1次，10次1療程。主治潰膿期乳腺炎。如膿水漸淨，膿腔擴大，不易愈合者，用20%黃柏水注入腔內，外蓋油紗布敷料，再用砂袋壓迫，1日1次，10天1療程。

(12) 塗搽法

處方：大黃, 芥草⁵⁾, 生薑 各 0.6g, 伏龍肝 32g 《中醫貼敷療法》

方法與主治：上四藥搗末，以醋調和塗乳房患處。1日3次，3天1療程。或病愈為止。主治乳腺炎初期。

(13) 綜合外治法

處方：生大蒜一瓣，艾絨少許 《中醫雜誌 1981; 22(8): 11》

方法與主治：患者仰臥位，在臍中穴作隔蒜灸。取生大蒜一瓣，取好獨頭蒜，將蒜切成藥 0.8~1毫米厚的薄片，放在穴位上，然後取艾絨少許置其上，按常規灸療操作5~7壯，至局部潮紅即可。再行坐位，醫者在患者背後，取患側天宗穴，以左手固定肩部，右手拇指·指尖做分筋樣的推壓拔動，手法稍重，使局部酸痛，連續左右來回拔動 6~7下為1次，反復拔動 3~5次。此時大多見患側乳頭有乳汁流出，隨即疼痛減輕。1日2次，3天1療程。主治乳腺炎早期未化膿者。

5) 芥草：=芥菜¹⁾。 갖(겨자)의 어린 줄기와 잎이다. 宣肺, 豁痰, 溫中, 利氣하여 寒飲內盛, 咳嗽, 痰滯, 胸膈滿悶을 치료한다.

[綜合評按] 根據資料分析, 應用外治法對乳腺炎初期療效較好, 可迅速消腫, 如塞鼻法·雪見草濕敷等. 對於潰膿期乳腺炎, 應用藥捻法治療, 總有效率可達 92%以上. 如再輔以內治, 則效果更佳.

7) 《中醫外科學》¹²⁾

乳癰 外敷

- ① 局部皮色不紅, 瘡而微痛, 宜和營消腫, 沖和膏黃酒調敷.
- ② 皮膚微紅者, 宜清熱解毒·活血消腫, 宜金黃膏 或 金黃散用仙人掌(去刺)·鮮菊花葉等搗汁調敷.
- ③ 色紅而熱盛者玉露膏或玉露散用銀花露⁶⁾調敷.

8) 《中醫外科學》¹⁵⁾

乳癰 外敷藥

(1) 初期(鬱乳期)

- ① 局部皮色不紅, 脹而微痛者可用沖和膏外敷;
- ② 皮膚微紅微熱者, 選用金黃膏或金黃散外敷;
- ③ 皮膚焮紅而熱盛者, 用玉露膏外部, 亦可用 50%芒硝溶液濕敷.

(2) 中期(成膿期)

- ① 切開排膿
- ② 穿刺抽膿法 : 膿腫淺小者, 宜局部常規消毒, 在膿腫波動最明顯處局麻後用粗鍼頭刺入膿腔抽排出膿液, 再用生理鹽水沖洗, 抽淨沖洗之液體, 然後外敷金黃膏. 每隔 2~3天穿刺抽膿并沖洗一次, 至腫痛消失, 身熱消退爲之.

(3) 後期(潰後期)

膿腐未淨可用八二丹或九一丹藥 捻或紗條引流, 外敷金黃膏, 膿盡則改用生肌玉紅膏或生肌散外敷.

9) 《家庭 東醫大全》¹³⁾

(1) 藥物治療

- ① 선인장 : 가시를 때 버리고 짓찧어 하루 4~5번 갈아 붙인다.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뚜렷하므로 젖몸이 젖몸이 튼튼하고 벌겍게 부어오를 때 하면 좋다.

6) 金銀花露¹⁴⁾: 金銀花를 적당한 양 취하여 가마 속에서 쪼다. 이 처방은 喉風 때에 먹을 수도 있고 局部에 붙일 수도 있다.

- ② 민들레 : 젖몸이 벌겍게 되면서 화끈 다는 때 신선한 것 40g을 짓쪼개낸 즙에다 술 20ml를 섞고 하루 2번에 나누어 끼니 뒤에 먹고 그 찌꺼기는 젖몸에 붙인다. 염증을 가라앉게 하고 아픔을 멎게 한다.
- ③ 마늘, 파 : 각각 같은 양을 짓쪼개 젖몸의 제일 아픈 곳에 여러 번 갈아 붙인다. 마늘의 알려진 성분은 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는데 파와 같이 쓰면 젖이 끓은 것을 가라앉힌다.
- ④ 마 : 깨끗이 물에 씻고 생즙이 나올 때까지 짓쪼개서 부은 곳에 붙인다. 끓지 않고 멎을 때 쓰면 멎을 때 풀리고 또 끓는 것도 막는다.
- ⑤ 감자 : 싹이 있는 생감자를 갈아서 아픈 곳에 여러 번 갈아 붙인다. 감자 싹에 있는 솔라닌은 많은 양에서 독작용이 있지만 적은 양에서 염증막이작용이 있으므로 젖없이 때에 붙이면 끓는 것을 막으며 끓었을 때에도 빨리 가라앉힌다.
- ⑥ 누에 : 볶아서 보드랍게 가루내어 식초에 반죽해서 하루 3~5번 뜯뜯해진 곳에 붙인다. 5일 동안만 붙이면 거의 다 낫는다.
- ⑦ 풀솜나물 : 신선한 옹근풀을 잘 짓쪼개 젖없이하는 젖몸에 붙인다.
풀솜나물 :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산과 들, 길가 등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곧추 서고 밑에서 가지를 많이 치며 흰색의 솜털이 뽕뽕히 있다. 잎몸은 좁고 긴 줄 모양(길이 3cm 안팎)이고 끝이 뾰족하다. 4~5월경 꽃줄기 끝에 밤색의 꽃이 핀다. 열매는 여원 열매이며 흰색의 우산털이 있다. 옹근풀을 젖없이, 인후두염, 머리아픔, 감기 등에 쓴다. 신선한 옹근풀을 잘 짓쪼개 얇은 젖몸에 붙인다.
- ⑧ 무릇 : 옹근풀 3~9g을 물에 달여 하루 3번 먹거나 짓쪼개서 젖없이하는 젖몸에 대고 찜질한다.
무릇 :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작은 산, 들, 밭에서 사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비늘줄기는 둥근 달걀 모양(2~3cm)이며 겉면은 검은 밤색의 껍질에 싸여 있고 아래에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다. 잎은 봄과 가을에 두 번 나오는데 봄에 나온 잎은 여름에 없어지고 다시 가을에 긴 잎이 나온다. 잎몸은 넓은 줄 모양의 거꿀어들임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다. 8~9월 경 줄기 끝에 연한 보라색의 꽃이 핀다. 열매는 타원형의 튀는 열매이다. 뿌리 줄기는 강심작용, 독풀이작용, 아픔멎이작용,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으므로 젖없이, 충수염에 쓴다.
- ⑨ 조선고약 : 황경피나무껍질, 대황, 송진, 송라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검은 밤색이 윤기가 있는 된 고약이다. 균억누름작용, 염증없애기작용, 아픔

벗이작용이 있어 현대, 부스럼, 젖앓이, 임파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농성 염증으로 붓고 화끈 달아오르거나 아픈 때에 쓴다.

(2) 찜질치료

- ① 무찜질 : 생무를 강판에 친 것을 깨끗한 천에 싸서 아픈 곳에 찜질한다. 끓기 전에 찜질하면 끓는 것을 막으며 튼튼하던 젖몸이 풀린다.
- ② 더운물찜질 : 젖몸에 튼튼한 젖망울이 지는 것은 젖앓이의 초기증상이다. 이때에는 더운 물에 수건을 담그었다가 꼭 짜서 그 수건으로 젖몸을 싸서 비벼준다. 좀 아픈 감이 있으나 참으면서 비벼주면 곧 젖망울이 풀리면서 젖도 잘 나오고 아픔도 멎는다.
- ③ 벗짚찜질 : 벗짚을 지나치게 타지 않도록 태워 가루내서 쌀가루로 쏘 풀에 개어 젖앓이 하는 젖몸에 발라주기를 하루 2~3번씩 2~3일 하면 끓지 않고 가라앉는다.

(3) 뜸치료

- ① 騎竹馬穴 : 제9와 제10 가슴등뼈 사이에서 각각 옆으로 1치 되는 곳(騎竹馬穴)에 뜸을 5~7장 뜬다. 젖몸이 끓으려고 할 때 뜨면 끓지 않고 가라앉는다.

10) 《韓方專門醫業書》¹⁶⁾

乳腺炎 外治法

끓지 않은 초기에는 더운 찜질을 하면서 乳房을 주물러주며, 신선한 선인장을 짓쪼어 붙이거나 金黃散¹⁴⁾, 玉露散¹⁴⁾, 쌍백산¹⁷⁾을 술이나 물에 개어 붙인다. 50%유산 마그네슘용액으로 찜질할 수도 있다. 乳疔 때는 陽和解凝膏¹⁴⁾, 沖和膏¹⁴⁾를 붙여 삭아지게 한다.

끓었으면 파동이 있는 부위를 방선상(유선밑 농양 때는 유방의 밑을 궁상으로 절개한다)으로 절개하고 九一丹¹⁴⁾, 八二丹¹⁸⁾ 약심지를 넣어 고름을 빼고, 金黃膏나 紅油膏를 붙인다. 새살이 살아나면 生肌散이나 白玉膏를 붙여준다.

11) 《東醫外科學》¹⁴⁾

乳癰

外治法은 乳癰의 모든 형에서 방법이 동일한데 初期에 피부색이 붉고 腫脹, 熱感, 疼痛이 있으면 玉露散, 淸涼膏, 黃芩散 등을 사용하고, 피부색이 그리 붉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때에는 沖和膏, 太乙膏 등을 사용한다.

끓었을 때에는 절개해야 하는데 절개할 때에는 乳絡을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乳

頭를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터진 후에는 九一丹을 이용해서 膿汁의 流出을 촉진시키거나 약선을 이용하여 引流法을 적용한다. 치유기에는 生肌散을 사용한다. 만일 瘡口에서 乳汁이 계속 나오면 압박봉대를 한다.

민간요법으로는 민들레(蒲公英) 20g을 물 300g에 넣어 달여서 한번에 그 물을 먹기도 하며, 생것을 짓찧어서 아픈 부위에 붙인다. 生地黃과 마늘을 같은 양으로 섞어 짓찧어서 아픈 곳에 붙이기도 하며, 쇠비듬(馬齒莧)을 짓찧어 붙이는데 마르면 계속 갈아 붙인다.

III. 고찰

오늘날의 乳腺炎은 妬乳·吹乳·乳癰의 범주에 속한다^{9) 12) 13) 14) 15) 16) 20) 21) 22)}.

妬乳는 乳房濕疹에 해당하는 病證으로 經産婦에 있어서는 授乳期の 刺戟으로 乳房 및 乳暈部에 濕疹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吹乳는 乳房內에 생긴 一切의 腫瘍을 지칭하며, 이 때의 腫瘍은 鬱滯性乳腺炎을 續發하는 것이다. 吹乳는 乳房內에 結核(結節)이 있으며, 發赤腫脹疼痛 등 症狀은 없는 것이 많다. 그러나 때로는 점차 腫大하거나 疼痛이 생기고 乳癰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 發生時期에 따라 産前吹乳는 內吹乳라고 하고, 産後吹乳는 外吹乳라고 구별하나 症狀은 同一하다. 乳癰은 乳房癰疽의 뜻으로 乳腺炎을 말한다. 乳腺炎은 대개 産後 2~3주에 急作히 發病하는 예가 많으며 急激한 發熱惡寒高熱이 오며, 乳房의 一部分이 發赤腫脹하여 激痛을 일으킨다. 이때 乳房을 만져보면 硬結을 촉지 할 수 있고 심한 痛症을 느낀다. 이에 대한 처치가 늦어지면 化膿되고 高熱이 떨어지지 않으며 腋窩淋巴腺이 腫脹하여 팔을 들 수 없게 된다. 腫脹된 부위에는 膿瘍이 형성되며 터져서 膿汁이 流出하는 수도 있고, 膿性乳汁이 排出되기도 한다²¹⁾.

乳癰이란 乳房에 작은 종기나 膿瘍이 생긴 것으로 여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乳病의 하나이다. 대개 産後 반 달 이내에 발생한다. 乳癰은 그 發病 時期와 病因의 차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外吹乳癰으로, 授乳期에 젖이 停滯되어 발생한다. 둘째, 內吹乳癰으로 胎氣가 旺盛하여 위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셋째, 非哺乳期の 乳癰은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발생하며, 肝經에 鬱滯된 氣와 陽明經의 熱이 結合하여 乳絡을 가로막음으로써 발생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外吹乳癰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다음으로 內吹乳癰이 많이 발생한다.²⁰⁾

妬乳·吹乳·乳癰에 대한 치료법은 韓藥을 이용한 內服藥과 鍼灸療法, 外用藥을 이용한 外治療法 등이 있다. 그 동안 乳腺炎은 일반적으로 양방적인 外科的 치료법

이나 韓藥을 內服하는 방법으로만 치료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韓醫學書籍을 조사해보면, 妬乳·吹乳·乳癰을 韓藥이나 民間藥을 이용한 外治法으로 치료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한방문헌에 기재된 外治法을 살펴보면, 한 가지 약물을 이용한 單方療法과 여러 약물을 혼합한 複方療法이 있으며 이를 현대 의약품과 결합한 中西醫 결합의 外治療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單方療法에 관하여 먼저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單方療法의 비교

(1) 葱白 大蒜은 《東醫寶鑑》 등^{1) 3) 9) 13)}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許¹⁾는 “以溫葱湯, 頻洗乳房.”, “連根葱白, 搗爛, 鋪患處上用瓦罐盛灰火, 蓋葱上一時, 蒸熱出汗, 卽愈”, “乳癰初起, 便宜隔蒜灸法.”라고 하였고, 賣⁹⁾는 “薰洗法 處方: 葱白 3~5兩. 葱白切細後加入適量熱水, 先熏後洗患側乳房, 每日 3~5次, 2天1療程. 主治乳腺炎初期.”, “隔藥灸法 處方: 葱白或大蒜. 用葱白或大蒜搗爛, 鋪患處, 用艾條熏灸, 1日2次, 每次 10~20分鍾, 3天1療程. 主治乳腺炎初期.”, “隔藥灸法 處方: 葱白或大蒜. 用葱白或大蒜搗爛, 鋪患處, 用艾條熏灸, 1日2次, 每次 10~20分鍾, 3天1療程. 主治乳腺炎初期.” 라고 하여 乳癰에 씻거나 김을 쏘이거나 짓 찌어 붙이거나 隔藥灸法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李 등^{1) 3) 9)}은 콧구멍에 葱白과 大蒜을 짓찧어 넣어 그 향을 맡게 하여 消腫의 효과로 初期乳腺炎을 치료하는 塞鼻法을 소개하고 있다.

(2) 蒲黃赤小豆는 《婦人大全良方》 등^{1) 5) 6)}에 나온다.

(3) 芒硝는 《婦人大全良方》 등^{3) 6) 9) 15)}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陣⁵⁾은 “藺草”로 표기하고 赤小豆와 함께 細末하여 酒에 혼합하여 붙인다고 하였고, 武⁶⁾는 “硝石”으로 표기하고 皂角을 酒에 넣어 汁을 낸 후 硝石과 함께 달여 膏로 만들어 붙인다고 하였고, 賣⁹⁾는 馬齒莧과 함께 짓찧어 患處에 붙인다고 하였고, 韋¹⁵⁾는 50% 芒硝 溶液을 濕敷한다고 하였다.

(4) 鹿角은 《婦人大全良方》 등^{1) 5) 6)}에 공통적으로 나오며, 陣⁵⁾과 武⁶⁾는 鹿角을 甘草와 함께 細末을 하여 陣⁵⁾은 鷄子白에, 武⁶⁾는 鷄子黃에 섞어서 銅器 안에 暖溫하게 하여 患處에 바른다고 하였다. 또한 陣⁵⁾과 許¹⁾는 鹿角을 돌에 갈아 濃汁을 내어 患處에 바른다고 하였고, 陣⁵⁾은 또 다른 방법으로 鹿角을 태워 재로 만들어 酒에 버무려 바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5) 仙人掌은 《濟陰綱目》 등^{6) 12) 13) 16)}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武⁶⁾는 仙人掌草 한 주먹을 小酒槽 한 덩어리와 生薑 큰 것 한 덩어리와 함께 짓찧어 소량의 炒

한 桂枝 粉末한 것에 넣어 酒에 服用하고 그 찌꺼기를 患處에 붙인다고 하였고, 《家庭東醫大全》에서는 선인장의 가시를 떼버리고 짓찧어 患處에 붙인다고 하였고, 顧¹²⁾는 乳腺炎初期 皮膚微紅한 경우에 清熱解毒·活血消腫하기 위해 金黃散을 쓰면서 仙人掌을 去刺하고 신선한 菊花葉을 搗汁하여 患處에 붙인다고 하였다.

(6) 蒲公英은 《東醫寶鑑》 등^{1) 3) 9) 13) 14)}에 공통적으로 나오며 물에 달여 마신 후 그 찌꺼기를 患處에 짓찧어 붙인다고 하였고, 賣⁹⁾는 土豆와 함께 돌질구에 짓찧어 患處에 붙이거나, 連翹·乳香과 함께 細末하여 식초나 배갈에 섞어서 患處에 바른다고 하였다.

(7) 蕪菁은 《東醫寶鑑》 등^{1) 3) 13)}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許¹¹⁾와 李⁹⁾는 生薑과 그 잎을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을 넣고 짓찧어 붙인다고 하였고, 《家庭東醫大全》에서도 생무를 강판에 친 것을 깨끗한 천에 싸서 아픈 곳에 찜질한다고 하였다.

2. 乳腺炎에 사용된 外治法 處方の 비교

《婦人大全良方》의 妬乳·乳癰 外治處方を 《濟陰綱目》에서 거의 그대로 傳寫하고 있다.

(1) 赤龍皮湯·天麻湯

赤龍皮湯의 榭皮는 《婦人大全良方》 등^{5) 6)}에 공통적으로 序頭에 나온다. 榭皮¹⁰⁾는 떡갈나무의 樹皮로 惡瘡를 치료하는데, 《中藥大辭典》¹⁰⁾에서는 赤龍皮湯을 예로 들면서, 諸敗爛瘡를 씻어 치료한다고 하였다. 陣⁵⁾과 武⁶⁾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씻어 준다고 하였다.

天麻湯의 天麻草는 《婦人大全良方》 등^{5) 6)}에 공통적으로 나오며, 陣⁵⁾과 武⁶⁾ 모두 妬乳에 赤龍皮湯·天麻湯으로 患部를 씻어 준다고 하였다.

(2) 冲和膏

冲和膏는 《韓方專門醫業書》 등^{12) 14) 15) 16)}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韓方專門醫業書》에서는 乳疽에, 韋¹⁵⁾는 乳癰의 初期에 피부색이 그리 붉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때 사용하는데 “行氣, 疏風, 活血, 定痛, 消腫, 去冷, 軟堅 작용이 있기 때문에 陰陽이 不和되고 寒熱이 있을 때에 사용한다.”^{12) 14) 15)}라고 하였다. 顧¹²⁾와 韋¹⁵⁾는 《外科正宗》을 인용하여 “冲和膏는 紫荊皮(炒)150g, 獨活90g, 赤芍60g, 白芷30g, 石菖蒲45g를 細末한다. 疏風·活血·定痛·消腫·去冷·軟堅하여 陰證과 陽症 사이에 있는 證候의 瘡瘍을 治療한다. 葱汁·陳酒에 섞어서 붙인다. 冲和油膏는 바세린 8/10에

神和膏2/10를 섞어 膏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金黃散·金黃膏

金黃散은 《婦人大全良方》 등^{12) 14) 15) 16)}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陳⁵⁾은 “奶癰을 치료하며, 川大黃·粉草를 細末하여 좋은 술에 끓여 졸인 후 膏를 만들어 차갑게 한 후에 患處에 붙인다.”라고 하였고, 《韓方專門醫業書》¹⁶⁾에서는 끓지 않은 初期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東醫外科學》¹⁴⁾에서는 乳癰의 初期에 피부색이 붉고 腫脹, 熱感, 疼痛이 있을 때 黃芩散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金黃散의 異名으로 보인다. 또한 “金黃散은 天南星·陳皮·蒼朮·甘草·厚朴 各 8錢, 黃柏·薑黃·白芷·大黃 各5分, 天花粉 4兩을 가루내어 뜨거운 기름 혹은 絲瓜絡汁을 加하여 붙인다. 이 처방은 止痛, 消腫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疔瘡, 陽證 瘡瘍 때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顧¹²⁾와 韋¹⁵⁾는 乳癰初期 皮膚微紅에 清熱解毒·活血消腫하기 위해 사용하며, 《醫宗金鑑》을 引用하여, “大黃·黃柏·薑黃·白芷各 2,500g 南星·陳皮·蒼朮·厚朴·甘草 各 1,000g 天花粉 5,000g을 모두 細末한다. 清熱除濕, 散瘀化痰, 止痛消腫하여 一切陽證을 치료한다. 葱汁·酒醋·麻油·蜜·菊花露·銀花露·絲瓜葉搗汁 等に 섞어서 患處에 붙인다.”라고 하였고, 金黃膏는 “바세린 8/10을 金黃散2/10에 섞어서 고르게 膏를 만든 것으로 효과는 金黃散과 같고, 患處에 붙인다.”라고 하였다. 韋¹⁵⁾는 “中期(成膿期)에 穿刺抽膿法에서膿을 생리 식염수로 깨끗이 씻어낸 후에 金黃膏를 바르면膿을 없앤다.”고 하였고, 《韓方專門醫業書》¹⁶⁾에도 “고름을 빼낸 후에 金黃膏를 붙인다.”고 하였다.

(4) 玉露散·玉露膏

玉露散은 《中醫外科學》 등^{12) 14) 15) 16)}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韓方專門醫業書》¹⁶⁾에서는 “乳腺炎 初期에 끓지 않았을 때 사용 한다”고 하였고, 《東醫外科學》¹⁴⁾에서는 “乳癰의 初期에 피부색이 붉고 腫脹, 熱感, 疼痛이 있을 때 사용 한다”고 하였고 “玉露散은 芙蓉葉을 보드랍게 가루 내어 麻油, 菊花露, 金銀花露 혹은 바세린에 섞어서 局部에 바른다. 이 처방은 涼血·退腫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陽毒이 盛할 때에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顧¹²⁾와 韋¹⁵⁾는 모두 乳癰에 피부색이 焮紅하고 熱盛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顧¹²⁾는 銀花露에 섞어서 붙인다고 하였고, 韋¹⁵⁾는 50% 芒硝 용액으로 濕敷하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顧¹²⁾와 韋¹⁵⁾는 玉露散이 《經驗方》이며, “芙蓉葉 多少에 관계없이 梗莖을 가루 내어 極細末한 것을 麻油·菊花露·銀花露 혹은 凡士林(=바세린)에 섞어서 患處에 바른다. 涼血·清熱·退腫하여 一切 陽證을 치료한다.”^{12) 15)}라고 하였고 玉露膏를 설명하면서 “玉露膏는 바세린 8/10에 玉露散2/10을 고르게 섞어 고를 만든 것이다(每 300油膏中에 의료용 石炭酸(=carbolic acid)을 10방울 가해도 된다).”^{12) 15)}라고 설명하였다.

(5) 八二丹·九一丹

八二丹·九一丹은 《東醫外科學》 등¹⁴⁾ ¹⁵⁾ ¹⁶⁾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韓方專門醫業書》¹⁶⁾에서는 “乳腺炎으로 끓은 경우에 절개를 한 후에 八二丹·九一丹 약심지를 넣어 고름을 빼낸다”고 하였고, 《東醫外科學》¹⁴⁾에서는 “乳癰이 터진 후에 九一丹을 이용해서 膿汁의 流出을 촉진시키거나 약선을 이용하여 引流法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醫宗金鑑》을 인용하여 “九一丹은 煨石膏 9錢, 黃靈藥 1錢을 가루 내어 瘡面에 뿌린 것으로 膿汁과 썩은 살을 제거한다.”¹⁴⁾라고 설명하였다. 韋¹⁵⁾는 “乳癰後期(潰後期)에 끓고 썩어 깨끗하지 않은 곳에 八二丹이나 九一丹 같은 藥으로 꼬거나 실을 사용해 흐르게 한다.”고 하였고 《經驗方》이라 소개하며 “八二丹은 煨石膏8g, 升丹2g을 極細末로 갈아서 瘡口 안에 밀어 넣거나 藥線에 묻혀서 창구 안에 삽입하며, 排膿提毒의 효과가 있어 一切潰瘍에 膿이 흐름이 좋지 않고 끓은 곳이 좋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¹⁵⁾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醫宗金鑑》을 인용하여 “九一丹은 熟石膏9g, 升丹1g을 가루 내어 極細末로 만든 것이다. 이를 창구 안에 밀어 넣거나 약선을 약에 묻혀서 창구 안에 삽입시키고 곁은 고약을 바르는데, 매일 1,2 차례 약을 갈아 준다. 提膿去腐하여 一切潰瘍에 流膿이 未盡한 것을 치료한다.”라고 설명하였다.

(6) 生肌散·生肌玉紅膏

生肌散은 《東醫外科學》 등¹²⁾ ¹⁴⁾ ¹⁵⁾ ¹⁶⁾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韓方專門醫業書》¹⁶⁾에서는 “乳腺炎이 끓었을 때 절개하고 나서 새살이 살아나면 生肌散를 붙여준다.” 하였고, 《東醫外科學》¹⁴⁾에서는 “乳癰이 터진 후의 治癒期에 生肌散을 사용하며 寒水石·滑石·龍骨·烏賊骨 각 1兩, 定粉·密陀僧·枯白礬·乾麩脂 각 5錢을 가루 내어 뿌린 것으로 새살이 나오게 하며 빨리 아물게 하기 때문에 癰疽가 터진 후에 잘 아물지 않을 때에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顧¹²⁾와 韋¹⁵⁾는 “乳癰의 後期(潰後期)에 끓고 썩은 것이 없어지면 生肌散을 발라준다.”라고 하였고 《經驗方》이라 소개하며 “生肌散은 制爐甘石15g, 滴乳石9g, 滑石30g, 冰片0.3g을 極細末한 것으로, 瘡口를 움켜잡고 곁에 膏藥이나 藥膏를 발라주면 生肌收口하여 癰疽潰後에 膿水將盡者에 사용한다.”¹²⁾ ¹⁵⁾라고 설명하였다.

生肌玉紅膏는 《中醫外科學》¹²⁾ ¹⁵⁾에 나온다. 顧¹²⁾와 韋¹⁵⁾는 “乳癰의 後期(潰後期)에 끓고 썩은 것이 없어지면 生肌玉紅膏를 발라준다.”고 하였으며, 《外科正宗》을 인용하여 “生肌玉紅膏는 當歸60g, 白芷15g, 白蠟60g, 輕粉12g, 甘草36g, 紫草6g, 血竭12g, 麻油500g을 먼저 當歸·白芷·紫草·甘草를 기름에 3일간 담갔다가 慢火로 달여서 약간 졸게 되면 가는 명주에 거른 후에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자루에 넣어 달이는데 血竭을 넣어서 달여 없어질 정도가 되면 白蠟을 넣고 微火로 녹인다.

그 다음 찻잔 4개를 물이 닿지 않도록 예방하고 膏藥을 4곳에 나누어 찻잔에 기울여 붓는데, 납작하게 될 정도가 되면 가늘게 가루 낸 輕粉을 각 찻잔에 3등분해서 넣어 섞는다.”^{12) 13)}라고 하였다.

3. 塞鼻法吹鼻法

塞鼻法은 《醫學入門》³⁾에 나온 방법을 《東醫寶鑑》¹⁾에서 引用하여 轉寫하였고, 이를 《當代中藥外治臨床大全》⁹⁾에서 이용한 방법으로, 乳腺炎初期⁹⁾와 乳癰³⁾ 혹은 乳巖¹⁾에 사용된 방법이다. 吹鼻法은 《本草綱目》³³⁾에 나온 방법을 《當代中藥外治臨床大全》⁹⁾에서 인용한 방법이다.

(1) 藥物構成

塞鼻法은 기존의 방법과 달리 콧속에 韓藥을 넣어 그 臭氣를 맡게 하였다. 사용된 藥材는 半夏 葱白^{1) 3) 9)}과 鮮芫花根皮⁹⁾ 등이다. 吹鼻法은 콧속에 藥物을 불어넣는 것으로 사용된 藥材는 貝母⁹⁾ 등이다. 塞鼻法과 吹鼻法에는 半夏나 貝母 등 祛痰藥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亦有所乳之子膈有滯痰，口氣焮熱含乳而唾熱氣所吹，遂成結核，謂之吹乳”²⁾라고 한 것처럼 吹乳의 病因을 痰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當代中藥外治臨床大全》에서 《本草綱目》³³⁾의 吹鼻法을 인용한 부분⁹⁾에서 “貝母. 上方適量，研碎吹入鼻內. 1日3次，3天1療程. 主治乳腺炎初期”라고 한 것도 貝母의 祛痰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 使用時期에 대하여

《醫學入門》³⁾에 “乳癰…惟初期，不分屬何經絡.”라고 말한 것을 보아 初期에 患部의 經絡의 구분기 가지 않을 때 鼻腔을 자극하여 祛痰, 利氣 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賣⁹⁾는 “乳腺炎初起”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3) 患左塞右鼻; 患右, 塞左鼻에 대하여

“좌측 유방이 아프면 우측 콧구멍을 막고, 우측 유방이 아프면 좌측 콧구멍을 막아”라고 하였는데, 患側이 아닌 健側에 막은 이유에 대해 賣⁹⁾는 鼻嗅法을 설명한 부분에서 “半夏研細末，大蔥搗如膏，調勻，分成7份，用塑料薄膜卷成長筒狀，按壓健側鼻孔，以患側鼻孔嗅之，或裝瓶嗅之. 如法將7份藥膏嗅完爲1次，約需30分鍾左右. 1日1次，3天1療程. 主治乳腺炎初起”라고 하여 결국 냄새를 맡게 하는 쪽이 患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塞鼻法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鮮芫花根皮適量搗爛，搓成細長條塞鼻，約20分鍾左右，鼻內有熱辣感時取出，左右交替使用. 1日2次，每次30分鍾，3天1療程. 主治急性乳腺炎初期”라고 하여 患側과 健側에 관계없이 左右의 콧구멍을 교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4. 乳癰의 外治法에 의한 종합적 치료법 考察.

이상의 乳癰에 대한 外治法을 時期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初期乳腺炎(鬱乳期)^{12) 14) 15)}

初期乳腺炎(鬱乳期)은 아직 膿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이 시기는 乳房이 붉은 색을 띄면서 熱이 나는가 여부로 3가지로 나뉜다.

(1) 局部的 皮膚色이 붉지는 않지만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아픈(局部皮色不紅, 脹而微痛者) 경우이다^{12) 14) 15) 16)}

- ① 이때는 和營消腫^{12) 14) 15)}한다.
- ② 沖和膏를 黃酒에 섞어 外敷한다^{12) 14) 15) 16)}.
- ③ 半夏와 葱白을 이용하여 1일 2회 30분 정도 鼻塞法을 2~3日 정도 쓸 수 있다^{1) 3) 9)}.
- ④ 貝母를 가루 내어 콧구멍에 넣어넣는 吹鼻法을 1일 3회 2~3日정도 쓸 수 있다^{9) 33)}.
- ⑤ 더운찜질을 하면서 乳房을 주물러 주면서 뿌리가 달린 葱白을 짓찧어 患處에 붙인다. 또는 과를 달인 따뜻한 물로 乳房을 자주 씻는다^{1) 5) 6) 9) 11) 14) 16)}. 또는 山藥^{1) 13)}·益母草^{1) 5)}·蒲黃草^{1) 5)}·蒲公英^{1) 9) 13) 14)}·青桑葉¹⁾·赤小豆^{1) 5) 6)}·蔓菁^{1) 3)}·鹿角^{1) 5) 6)}·生地黃^{1) 5) 6) 14)} 등을 單方으로 짓찧거나 가루 내어 外敷한다.
- ⑥ 阿是穴에 大蒜이나 大蒜을 짓찧어 붙인 후 그 위에 艾絨을 올려 灸하는 隔藥灸法^{1) 9) 13)}이나, 臍中穴^{9) 31)}에 隔蒜灸法을 쓰며, 등뒤의 騎竹馬穴^{3) 13)}에 灸法을 사용하여 心火를 꺼준다고 하였다³⁾.
- ⑦ 아직 成膿期가 아니므로 칼로 切開해서는 안 된다^{1) 12) 15)}.

(2) 局部的 皮膚色이 약간 붉으면서 약간 熱이 나는(皮膚微紅微熱者) 경우이다^{12) 14) 15) 16)}.

- ① 清熱解毒·活血消腫^{12) 15)}한다.
- ② 金黃膏나 金黃散을 外敷한다^{12) 14) 15) 16)}.
- ③ 신선한 仙人掌(去刺)^{9) 12) 13) 16)}을 짓찧어 外敷한다고 하였다. 같은 初期乳腺炎(鬱乳期)에 속하므로 위의 單方療法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④ 鼻塞法 역시 위와 같이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⑤ 아직 成膿期가 아니므로 칼로 切開해서는 안 된다.

(3) 局部的 皮膚色이 아주 붉으면서 熱이 심하게 나는(皮膚焮紅而熱盛者) 경우이다^{12) 14) 15) 16)}.

- ① 清熱解毒·活血消腫^{12) 15)}한다.
- ② 玉露膏 혹은 玉露散^{12) 14) 15) 16)}을 金銀花를 가마 속에서 쪼낸 金銀花露^{12) 14)}와

함께 붙인다.

- ③ 50%芒硝溶液¹⁵⁾을 濕敷하거나 芒硝^{5) 6)} 30g, 馬齒莧^{9) 11)} 30g을 짓쪄은 후 患處에 外敷한다.
- ④ 鼻塞法 역시 위와 같이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⑤ 아직 成膿期가 아니므로 칼로 切開해서는 안 된다.

2) 中期乳腺炎(成膿期)^{12) 14) 15)}

乳絡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방사상^{14) 16)}으로 切開排膿하고 穿刺抽膿法을 써서 농을 빼낸다^{12) 14) 15) 16)}.

3) 後期乳腺炎(潰後期)^{12) 14) 15) 16)}

끓고 썩어 깨끗하지 않는 곳에 八二丹이나 九一丹 같은 약으로 꼬거나 실을 사용하여 흐르게 하고^{2) 14) 15) 16)}, 金黃膏^{2) 14) 15) 16)}를 발라주어 고름이 없어지면 生肌散^{2) 14) 15) 16)}을 발라 주어 새살이 돋게 하였다.

IV. 결론

여러 한방문헌에서 乳腺炎에 대한 外治法을 연구해본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乳腺炎은 初期(=鬱乳期)·中期(=成膿期)·後期(=潰後期)로 나뉘며, 그에 따른 外治法이 달라진다.
2. 외치요법에 사용되는 외치약제의 제형은 한 가지 약물을 이용한 單方療法과 여러 약물을 혼합한 複方療法이 있으며 이를 현대의약품과 결합한 中西醫 결합의 外治療法이 있다.
 初期乳腺炎(鬱乳期)은 乳房이 붉은 색을 띄면서 熱이 나는가 여부로 3가지로 나뉘며 그에 따른 치료법이 각기 다르다.
 첫째, 局部的의 皮膚色이 붉지는 않지만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아픈 경우에는 沖和膏를 外敷한다.
 둘째, 局部的의 皮膚色이 약간 붉으면서 약간 熱이 나는 경우에는 金黃膏나 金黃散을 外敷한다.
 셋째, 局部的의 皮膚色이 아주 붉으면서 熱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玉露膏나 玉露散을 外敷한다.

3. 中期乳腺炎(成膿期)은膿이 발생한 시기이므로, 乳絡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방사상으로 切開排膿하고 穿刺抽膿法을 써서 농을 빼낸다.
4. 後期乳腺炎(潰後期)은膿이 배출되는 시기이므로, 긁고 찌어 깨끗하지 않는 곳에 八二丹이나 九一丹으로 꼬거나 실을 사용해 흐르게 하고, 金黃膏를 발라주어 고름이 없어지면 生肌散을 발라 주어 새살이 돋게 한다.
5. 塞鼻法은 半夏를 부드럽게 가루내고 큰 과를 짓찧어 健側의 콧구멍에 집어넣은 후 患側의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게 하여 하루 1번 3일간 乳腺炎初期에 消腫의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6. 吹鼻法은 貝母를 적당량 가루 내어 콧속에 넣어 하루 3번 3일간 乳腺炎初期에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7. 乳腺炎에 사용되는 單方 외치요법은 더운찜질로 乳房을 주물러 주면서 뿌리가 달린 葱白, 山藥, 益母草, 蒲黃草, 蒲公英, 靑桑葉, 赤小豆, 蔓菁, 鹿角, 生地黃 등을 짓찧어 患處에 붙이는 것이다.

V. 참고 문헌

1.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4년; pp 271~274
2. 許浚, 東醫寶鑑, 여강출판사, 서울, 1994년; 2권 外形篇 pp873~886
3. 李梴,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1994년; 上卷 pp 461, 下卷 pp403
4. 李梴, 國譯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91년; 7卷 pp 66~70
5.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5; pp 642~651
6. 武之望, 濟陰綱目, 一中社, 서울, 1992년; pp 569~576
7. 張景岳, 婦人規, 廣東科技出版社, 廣東省, 1986년; 292~296
8. 傅青主, 傅青註女科發揮,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4년; 147~149
9. 賣一江, 當代中藥外治臨床大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1년, pp324~326
10. 新編 中藥大辭典, 一中社, 서울, 中pp1914(3680), 下pp 2437(4709)
11. 鄭普燮, 圖解 鄉藥大事典, 永林社, 서울, 1998년, pp156~157, 573, 661, 809, 862
12. 顧佰康, 中醫外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78년, pp160, , 475, 481
13. 北韓 東醫科學院, 家庭 東醫大全, 여강출판사, 서울, 1993년, pp680~683
14. 동의학연구소, 東醫外科學, 여강출판사, 서울, 1997년, pp257, 576, 578, 604, 620, 624, 647, 651, 655, 665,

15. 韋永興, 中醫外科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5년, pp59
16. 동의과학연구소, 韓方專門醫業書 6권, 해동의학사, 서울, 1996년, pp114
17. 평양의학대학, 재편집 동의학사전, 도서출판 까치, 서울, 1990, pp650
18. 江克明, 校訂方劑大辭典, 醫聖堂, 서울, 1991년, pp29, 312
19.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서울, 2000년, pp1640
20. 趙順南, 實用婦產科學, 成輔社, 서울, 1996, pp567
21.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행림출판, 서울, 1995년, pp 272~273
22. 韓醫婦人科學 教材編纂委員會, 韓醫婦人科學, 정담, 서울, 2001년, 上卷 pp 361~367
23. 元一祥 主編, 韓英雙解中醫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년, pp278, 619
24.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서울, 1990년
25. 金貞淑 외 3인, 乳癰에 活用되는 加減流氣飲에 對한 實驗的 研究, 大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教室,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vol. 8. No. 1 : 115~130(1995)
26. 柳同烈 외 2인, 乳癰에 活用되는 加味消毒飲의 鎮痛, 消炎作用에 對한 研究, 大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教室,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vol. 10. No. 1 : 051~061(1997)
27. 金廷珍 외 2인, 乳房腫塊에 關한 文獻的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教室,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vol. 11. No. 2 : 029~043(1998)
28. 金容大 외 1인, 陰痒症 治療에 活用된 外治法 中 陰道納法에 對한 研究, 大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教室,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vol. 11. No. 2 : 107~120(1998)
29. 柳同烈 외 1인, 妊娠中 疾患에 사용되는 外治法에 對한 研究, 大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教室,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vol. 12. No. 1 : 061~084(1999)
30. 鄧良月, 中國鍼灸證治通鑿, 青島出版社, 北京, 1995년, pp313
31. 楊甲三, 鍼灸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년, pp 182~183
32. 全國韓醫科大學鍼灸學教室, 鍼灸學(上), 集文堂, 서울, 1994년, pp 312~313
33.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년, pp 378
34. 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英醫學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년, pp 284, 1083